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

- 지리과목을 중심으로 -

현 경 희*

목 차

- I. 머리말
- II.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 현황
- III.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IV. 맺는말

I. 머리말

지리과목을 중심으로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겠다. 연계 현황으로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과 부설학교와의 연계, 지리교육전공과 중등학교와의 연계, 지리교육전공과 지리 및 사회과 교사와의 연계, 지리교육전공과 제주도교육청과의 연계 활동을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그리고, 그 현황을 바탕으로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도적 측면, 의식과 실천적 역량의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논의해 보겠다. 즉, 이 글은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이 지리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시도하고 노력했던 성과와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는 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논의되어서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의 연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II.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 현황

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과 부설학교와의 연계 현황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과 사범대학 부설학교와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매년 5월 교육실습이 이

*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루어지고 있다. 지리교육전공 4학년 학생들이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1주일 동안 참관실습을 하고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4주간의 본 실습을 부설학교에서 하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지리교육전공 학생 2명이 부설학교에서 본 실습을 했고, 2005년도에는 지리교육전공 학생 4명이 부설학교에서 본 실습을 했으며, 그 외의 학생은 도내의 다른 학교에서 본 실습을 했다.

또한, 지리교육전공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현장 교사를 대학 강의에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다. 사범대학 부설학교만이 아니라 도내 다른 중등학교 교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학기당 2~3명의 교사가 지리교육전공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학과 현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강화와 대학 수업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대학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해외답사 경험을 가진 현장 교사나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교사를 특강에 초빙해서 지리교육전공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지리교육전공과 도내 중등학교와의 연계 현황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과 도내 중등학교와의 연계 활동의 첫번째로 '지리올림피아드'가 있다. 올해 6회째 열리고 있는 전국 지리올림피아드의 예선인 '제주도 지리올림피아드'가 5회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도내 26개 고교 중 15-20여개 학교에서 평균 200여명의 고등학생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대회를 치루는데 있어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이 없으면 대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리교육전공의 전적인 후원으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공문 발송, 대회장소 제공, 시상식, 기타 등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주관해 주고 있다.

제주도 지리올림피아드 개최 현황

	개최년도	일 자	참가학교수	참가학생수	비 고
1회	2000	11. 6	16	137	
2회	2002	5. 18	20	274	
3회	2003	5. 17	13	170	
4회	2004	5. 22	15	224	
5회	2005	5. 21	15	219	

그런데, 위 표의 참가 학교 수를 보면 2002년도 이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리를 전공한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리올림피아드 참가를 주도할 수 있는 교사의 부재로 참가가 어려워져 참가 학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대학과 중등현장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데에 관련 과목 담당교사의 충분한 확충과 더불어 적절한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지리교육전공 4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있어서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은 5~6개의 도내 중등학교에서 본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리교육전공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내 지리교사들의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지리교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강에는 황재기교수(서울대 사범대 학장, 지리교육전공), 김일기교수(한국교원대 제2대학 학장, 지리교육전공), 최석진박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실장, 지리교육전공)의 특강이 있었으며, 풍수지리관련 국제세미나(발표자: 송성대교수(제주대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David J. Nemeth교수(미국 University of Toledo 지리학과), 윤홍기교수(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지리학과))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조창래교사(방배중), 김육훈교사(상계고)를 초빙하여 제7차교육과정 사회과의 내용 요소와 구성체계, 교수-학습방법, 교과서 특징 등에 대한 안내 세미나도 있었다.

3. 지리교육전공과 지리 및 사회교사와의 연계 현황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과 지리 및 사회교사와의 연계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탐라지리교육연구회' 활동을 들 수 있다. 탐라지리교육연구회는 도내 현직 지리교사와 사회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리교육 및 사회과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탐라지리교육연구회가 창립하게 된 배경에는 지리교육전공에서 주최한 세미나가 계기가 되었다. 지리교육전공 주최의 지리교육세미나가 끝난 후 뒷풀이 모임에서 학과 교수들과 중등교사들이 다 함께 지리교사 모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탐라지리교육연구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창기 모임 때에는 지리교육전공 교수들이 지리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강을 했고, 다음부터는 지리교육, 지리학 관련 논문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요약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달에 1회 정도 꾸준히 모이고 있는데, 도외 답사, 도내답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내답사에는 지리교육전공 김태호교수가 화산지형, 해안지형을 비롯한 지형안내를 해 주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탐라지리교육연구회지에 학과 교수들이 원고를 투고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세계지리탐방'이 있는데 월1회 토요일 오후 세계지리관련 도서를 읽고 요약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세계지리탐방 모임은 학과 교수의 제안으로 이루어져서 그동안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 <박재동의 실크로드 스케치 기행>, <이슬람: 이슬람 문명 올바르게 이해하기>, <터키: 신화와 성서의 무대 이슬람이 숨쉬는 땅> 등 여러 권의 책을 읽었고 앞으로 세계지리관련 영화도 볼 예정이다.

그리고, 학기당 1회 '지리산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행사 역시 지리교육전공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올해 1월에는 1박 2일 10시간 동안 '지리교육과 지리사상사'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권정화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8월에는 서울 신성초등학교 강정희교사가 '초등 지역이해교육에서 위치와 영역 파악의 중요성-제주도를 사례로'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육대학원 해외답사가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0년 7월에는 7박 8일 동안 중국답사가 있었고, 2003년 1월에는 10박 11일 동안 인도 답사, 2005년 8월에는 11박 12일 동안 미국서부 답사를 했다. 해외답사에는 교육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회과 교사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8차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설문조사에 도내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지리교육전공에서 하고 있다.

4. 지리교육전공과 제주도교육청과의 연계 현황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은 제주도교육청과도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라교육원과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연수 시 강의를 지원해주고 있다.

Ⅲ.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제도적 측면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학과 현장과의 연계상 문제점의 배경으로 첫 번째는 제도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학 수업에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강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지원책의 미비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적인 지원책이라면, 현장 교사들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에 강의를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승진이나 지역간 이동에 관계되는 부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두 번째로는 교육실습과 관련된 내용이다. 참관실습과 본 실습이 대학교 4학년 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관실습은 3학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학부에서 일찍부터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교직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으로써 가르치는 일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필요한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한 학부생에게도 다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교육실습과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교육실습 지도교사에게 일정 점수를 주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바람직한 개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세 번째로는 현장 교사들이 공동연구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다. 교과교육 관련 연구과제 공모시 대부분 현장 교사의 공동연구원 참여가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현장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등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현장 교사의 연구 참여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보충수업, 자율학습 지도, 진학 지도, 생활 지도 등등 학교에 매어 있는 시간이 매우 많다. 따라서 연구 참여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주변 교사나 학교장에게 개인적인 양해를 구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육지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교사의 장기출장은 물론이고, 단기출장, 특가에도 기간제 교사를 교육청에서 파견하여 수업결손을 보강하고 있다. 교체수업보다 진일보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연구 참여교사에게도 수업시수의 일부를 기간제 교사가 담당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주변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이 당당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2. 의식과 실천적 역량의 측면

그런데, 제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학교장이나 현장 교사들의 의식의 전환이 없으면 실천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 교사들의 의식의 전환은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의식의 전환을 통해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개편, 또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회적 이슈(독도문제 등)가 있을 때, 새로워진 내용이나 사안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관련교수가 집중 강의함으로써 교실 수업에 도움을 준다거나, 사회적 이슈를 교실 수업에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교수와 현장교사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의식의 전환을 통한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안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GIS를 이용한 입지탐색,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환경교육에 대해 대학에서 수업 모형을 개발할 경우, 이 수업 모형을 현장 교사는 수업에 적용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대학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보완하고 다시 현장에 피드백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의 연구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중등교육 현장에서도 수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식과 실천적 역량만 갖추어진다면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 사범대학 교수가 직접 학교 현장에 나가서 일일교사와 같은 도우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3. 물리적 측면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의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리적 측면의 방안으로는 먼저 사범대학 부설학교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인근이나 제주대학교 캠퍼스 내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다.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가 가까이 있음으로써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의 접근도가 향상되고 공동연구라거나 연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물리적 측면의 두 번째로는 교육연구시설의 확충이 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건물이 확보됨으로써 교원연수를 상시화하고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의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

IV. 맺는 말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대학측과 현장 교사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학과 교수와 토론을 하는 동안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입장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 교사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현장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는 입장인 데 반해서 대학에서는 현장의 지원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대학은 앞장서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성과가 중등교육 현장으로 적용된다는 일방적인 입장만 생각했는데, 대학에서 현장의 지원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가 맞다고 생각된다. 서로 연구성과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쌍방적인 관계야말로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의 바람직한 연계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을 쓰는 과정은 대학과 중등교육 현장의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화와 토론이 없으면 나와 다른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접하지 못하고 내안의 생각만 고집할 수 있다. 나와 다른 다양한 생각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제3의 방법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 좋은 방법이다. 지금 오늘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